

2023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위원정수	9인	재적위원수	9인
------	----	-------	----

1. 일 시 : 2023.6.28.(수) 11시
2. 장 소 : 제1예술관 2층 회의실
3. 위원 출석현황

구 분	참 석	불참석	참 석 위 원	불참위원
위 원	5명	4명	이의철, 이명균, 석정웅, 김관식, 김성준	이혁화, 이희경, 박재현, 김유라

4. 안건

제1호의 안 :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5. 회의내용

가. 개회

- '간사'가 재적위원 중 5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됨을 보고하다.
- '위원장'이 2023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나. 안건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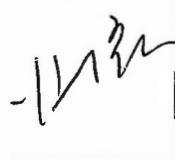




제1호의 안 :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제안설명

- '위원장'이 제1호의 안을 상정한다고 하며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교비회계 총 수입이 이월자금을 포함하여 9,622,951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1,835,394천원이 증가 하였으나 이는 미사용전기이월자금 3,418,902천원이 포함되었기에 그런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등록금수입 감소로 전체 수입금액이 감소하였으며, 총 지출은 이월자금을 포함하여 수입예산과 동일하게 증가하였다고 하다. 그리고,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 교비회계의 수입·지출에 대한 예산변동내역을 설명을 하면서 주요내용으로 명시이월금을 본 예산에 포함하여 적용하였으며, 수입예산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의 감소로 인한 등록금 수입감소가 예산감소의 큰 원인이었다고 하다. 지출예산은 이월금을 사용하여 본 예산을 책정할 때 수입예산이 부족하여 요구금액보다 적게 책정했던 보수 등의 목들을 요구금액에 맞춰 책정하는 등 총 지출예산도 증가하여 총수입예산에 맞게 조정하였다고 하다. 그리고,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목별로 변동된 예산세부내역에 대해 설명하다.

- 토론 및 토론 종결

- '위원장'이 제1호의 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묻다.
- '석정웅'위원이 교원과 직원의 각종수당이 왜 차이가 나는지, 국제교육원의 리스임차료를 증액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다.

서 명					
--------	---	---	--	---	---

- ‘간사’가 각종수당은 교원과 직원의 인원수가 차이가 나고 지출되는 세목들이 동일한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것도 있어 그렇다고 하다. 국제교육원의 리스임차료의 증액사유로는 지금까지 국제교육원에 입학한 어학연수생들이 학교 스쿨버스를 재학생들과 함께 사용했으나 인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2학기때는 버스의 수용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학연수생만 통학할 수 있는 버스를 따로 렌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증액을 하게 되었다고 하다.
- ‘김성준’위원이 신문방송국의 예산이 있는데 아직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다.
- ‘간사’가 해당 세목은 간담회 비용, 신문 발행비용 등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하다.
- ‘위원장’이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자는 ‘이명균’위원의 동의안에 ‘김관식’위원의 재청이 있어 ‘위원장’이 참석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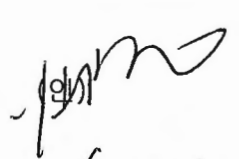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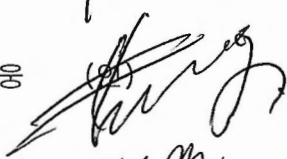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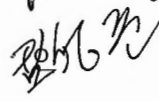
- 제1호의 안 :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다.

7. 폐회선언

상기 회무를 마치고 위원들의 폐회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어 위원장이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2023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본 회의록의 의사진행사항 및 그 의사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날인하다.

2023. 06. 28.

참석인원	위원장	이 의 철		위원	이 명 균	
	위원	석 정 응		위원	김 관 식	
	위원	김 성 준				
				작성자	김 광 진	